

주민 한사람이라도 더 만족할때까지 협의 또 협의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 고베시 하타하라시장사무소에서 개최된 하타하라시장재정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이날 회의는 사업자와 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 관계자와 전문 컨설턴트들이 조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시속 마을만들기 그 현장을 가다

<9> 에필로그

사업자-주민간 의견충돌
지자체가 나서서 중재
충돌하는 이해 해소 위해
오랜시간 다듬고 설득

취재진이 고부치 야스히로(42) 고베시 마치제생추진과 주사를 만난 것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7시20분. 그는 이날 출근 직후 고베시 나다구 하타하라 시장에 나와 전화를 받지 못할 만큼 정신없이 보였다. 오후 7시30분 하타하라시장재정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쇠락한 고베시 외곽의 시장에 대규모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이 사업은 3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업자, 전문가, 자치구 및 시청 관계자, 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리자 고부치 주사가 나서 현장에서 이들의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이다.

17년차 공무원인 그는 수습 공무원 1명과 함께 '마치즈쿠리'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고부치 주사는 "마치즈쿠리는 주민 의견이 가장 큰 줄기가 되지만 현실에서 관철되기란 너무도 어렵다"며 "대부분이 그렇듯 토지소유주나 시장 상인들에게 있어 토지나 점포는 전 재산이지만 지금 가치는 하락한 상태로, 투자할 사업자는 이를 높게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허름한 협동조합 하타하라시장사무소에서 열렸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주민대표, 컨설턴트 등의 양해를 얻어 우리나라 취재진으로서 처음으로 일본 마치즈쿠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생생한 논의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 나온 주민대표는 11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을 조인하는 컨설턴트, 자치구 및 시청 담당자 등이 그동안 진척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핵심사안은 도로 폐쇄 여부, 하수시설 개수비용 부담 주체, 아케이드 보수 여부, 기존 점포의 영업

여부, 공사 진입로를 막고 있는 불법 노점상 문제 등이었다. 컨설턴트는 쇼핑센터의 건립을 위해 일정기간 시장상인들의 통로를 폐쇄할 수밖에 없으며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이었다. 대부분 소규모 토지나 점포를 소유한 영세민인데다 통로가 없어지면 공사 기간 동안 영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로 상호 의견은 갈려 회의는 결론 없이 끝이 났고 이날도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다. 애초 이달 초순 사업실시를 정식 결정할 예정이었던 자치구와 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오는 5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50년 전 자연 형성된 하타하라시장의 정비는 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오후 늦은 시간, 고부치 주사 등의 안내로 둘러본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시장보다 더 열악한 여건이었다. 작은 방 한 칸보다도 작은 점포가 양편에 늘어서 있고 그 사이 골목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5년 전 화재로 불에 탄 점포는 지금도 그대로 있을 정도다.

포목상 아니기모토 마츠하루(77)씨는 "상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사업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도 힘들다"며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야기해나가야 비로소 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들의 바램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살다는 것뿐"이라며 "점포를 팔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며,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타하라시장의 마치즈쿠리는 이처럼 오랜 시간 다듬어지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재촉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꾸준히 설득하는 과정이 곧 일본의 마치즈쿠리였다. 공무원들은 철저히 중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과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주민-업체-고베시 전체 등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토지소유주나 주민을 역시 '큰 수의'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 중시하고 있다. 투자업체들은 신속한 사업보다는 문제 없는 사업을 선호하며, 공사 착수 전 완벽한 준비를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하나의 대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이 진정한 '개발'이며, 그들이 계속 거주하며 협의와 실천을 통해 지역의 바람직한 장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철학'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또 마치즈쿠리는 기한이 정해진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대한 계획권을 지역주민에게 주고, 그들이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돼 준다는 것도 참조할만하다.

글=/유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 마치즈쿠리 절차

공감대 형성→조직 구성→계획 실현 시민-민간업체-자치체 파트너십 필수

고베시는 1981년 말 '고베시지구계획 및 마치즈쿠리 협정 등에 관한 조례'(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마치즈쿠리 방안을 정했다. 이 조례의 특징은 우선 지역 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을 논의하고 마치즈쿠리 조직을 만드는 것에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서는 시민·민간업체·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상호 협동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마치즈쿠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지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②마치즈쿠리 조직 만들기→③구체적인 지역 장래상 고민→④마치즈쿠리 구성 책정→⑤마치즈쿠리 협의회 인칭 및 구성 제안→⑥마치즈쿠리 협정(원칙) 체결 및 기본계획 작성→⑦지역계획 결정→⑧사업계획 작성 및 실시

고베시는 마치즈쿠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턴트와 전문가를 파견하고, 연구모임 등에 대해서는 회의장 임대료나 인쇄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마치즈쿠리센터를 설치, 인재를 육성하고 마치즈쿠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거점으로 하고 있다.

마치즈쿠리 조례는 1장 총칙, 2장 마치즈쿠리협의회, 3장 마치즈쿠리 제안, 4장 마치즈쿠리 협정, 5장 지구계획 등, 6장 지원 등, 7장 마치즈쿠리 전문위원, 제8장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에서는 주로 고베시 지원 분야, 마치즈쿠리의 범위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마치즈쿠리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칙을 담은 마치즈쿠리 협정, 도로 정비나 재개발 등 지구계획 작성, 지역 내 마치즈쿠리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고베시 관계자는 "마치즈쿠리가 여러 지역에서 잘 추진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그 전과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아야 가능하다"며 "고베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서서히 마치즈쿠리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고베시 공무원과 시장 상인 대표들.

www.oknwood.com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말)
- 친환경 흙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필라 내장 미장재, 목모보드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들(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열, 필름합판, 문짝, 물딩

판매제품

- 장능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족욕기 · 독서대 · 책상Set(의자 · 책꽂이)
- 침대 · 샵롱 · 편백건강베개(편백씨앗+결명자씨앗)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백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중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652-2935 · 2223 fax. 062)651-5141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주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협력사 | 우린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이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을 범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안전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범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